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6호 [부계 제25755호] 주제106(2017)년 9월 3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핵무기병기화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책임일군들과 핵무기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맞이하고 핵무기병기화실행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리였다.

핵무기연구소에서는 핵무기병기화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전략적의도에 맞게 최근에 보다 높은 단계의 핵무기를 연구제작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제작한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을 보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낸 초강도폭발력을 가진 주체식열핵무기를 직접 보니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도 핵무력강화의 길을 굴함없이 걸어온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우리



핵탄으로 만들어나가는 우리 당의 미더운 《핵전투원》들이며 온 나라가 떠받들고 사랑해야 할 숨은애국자, 숨은공로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값높이 내세워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핵무기연구소가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마감단계의 연구개발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핵무기연구부문앞에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핵무기연구소의 과학

과학자들이 당에서 결심만 하면 수습 kt급으로부터 수백 kt급에 이르기까지 임의로 조정할수 있는 우리의 수소탄은 거대한 상상과피력을 발휘할뿐 아니라 전략적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EMP공격까지 가할수 있는 다기능화된 열핵전투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수소탄의 기술적제원과 구조작용 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우리의 핵과학자, 기술자들은 첫 수소탄시험에서 얻은 귀중한 성과에 토대하여 핵전투부로서의 수소탄의 기술적성능을 최첨단수준에서 보다 갱신하였다.

핵탄위력을 타격대상에 따라

조립에 이르기까지 핵무기제작에 필요한 모든 공정들이 주체화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강위력한 핵무기들을 마음먹은대로 팡팡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에서 제시한 완결단계에 도달시키기 위해 피라는 투쟁을 벌려온 원자력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군인들과 일군들은 당의 병진로선을 최강의

자들은 핵무력건설의 총사령관, 위대한 스승이 되시여 핵무기병기화사업의 매 단계마다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고마움의 인사

를 드리면서 국가핵무력건설의 전초선에 선 《핵전투원》들답게 위력한 핵무기들을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는것으로써 당과 혁명을 억척같이 보위해나갈 불타는 총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영웅적으로동계급의 투쟁본태를 파시하며 석탄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자력갱생으로 증산의 돌파구를

우리 공화국의 무적막강한 힘에 앞장선 미국과 주총세력들의 《세계경제》를 지역자력의 무리주력으로 산산조각낸 멸적의 의지를 때때로 석탄공업부문 일꾼들과 전투들이 펼친지하막장에서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와 도발적 동태에 맞서고있는 지금 만리마속도장대전에서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하자면 대외의 기수인 우리 일꾼들은 어떤 일본세력지나야 하는가.

우리는 조양관광 일꾼들의 사업을 놓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는다.

위대 한 병도 자기 집집들 동지끼리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십시오.

《절약은 곧 증산입니다. 절약제도를 강화하여 불자와 자금을 댈바하지 않고 효과있게 쓰면 더 불자와 자금을 가질수도 있는 것은 생산과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7차대회 결정편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지금 어는 단방이나 석탄생산이 단원일에 맡겨진 석탄생산계획도 지난해에 비해 높다. 반면에 적들의 아만적인 제제압살책으로 하여 단방의 석탄생산투쟁에서는 많은 애로와

난관이 제기되고있다. 하지만 이곳 한방을 찾았든 우리는 한 일꾼으로부터 지력갱생의 투쟁기쁨을 높이 발휘하여 필요한 자재를 절약하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날 굴진막상에 붙어있던 지체인 림동철동무는 작업장들의 어지러기에서 부러진 정대들을 보게 되었다.

당시 한방에서는 굴진공들 속에서 날로 세차게 파는지는 따라달라지, 파라배우기운동, 경험교한동등에 발을 맞춰 공무기자들의 역할을 높이 굴진소대들에 새 정대들을 비교적 원만히 보장해주고있었다. 그러다나니 일부 굴진공들속에서는 작업과정에 정대가 부러지는것을 있을수 있는 일로 여기면서 굴진실적에만 눈을 돌리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의무를 창조하는 사람도 애국자이지만 나라살림살이를 물감장사하며 정직하게 하는 사람도 애국자이며 애국자라고 교시하시지 않았는가. 더우기 오늘날의

조건에서 전투투기의 하나인 정대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자 곧 석탄증산성과가 아닌가.

문제를 이렇게 제기한 지체인은 당조직과의 토의를 거쳐 굴진공들속에서 착암기와 정대를 애호관리하기 위한 전바판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한편 부러진 정대들도 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그러던중 지체인은 개천철도국의 어느 한 단원에서 페루를 맞담을정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다음날 그 단원에 가서 그들의 작업모습을 구체적으로 본 지체인은 유절한 페루를 높은 석간역-조양역철도를 직접 밟아보았다.

페루처럼 부러진 정대도 맞담을접을 하면 얼마든지 리용할수 있다는 확신이 굳어졌다. 지체인은 유절한 정대들과 기술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후 한방에서는 정대맞담을 접기를 제작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지체와 부러진 쇠철동무를 비롯하여 제작조성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조양관과 배전실을 비롯한 각종 실비, 부분들을

만들어나갔다. 한쪽에서는 과학연구관을 비롯한 여러 단원들의 방호속에 용접실비의 제작이 진행되었다.

지체인을 비롯한 일꾼들이 수시로 전투현장을 찾아와 결핵진부리 어려운 속에서도 최종 발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이제는 처음에 비해 나뭇잎발리용품을 집단으로 구입하였다.

애로와 난관이 겹치는 속에서도 자기 힘을 굳게 믿고 펼쳐나선 지력갱생의 위력이라는 것이 보다 큰 성과를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실현투쟁속에서 더욱 깊이 체득한 한방의 일꾼들과 전투들은 오늘도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가면서 석탄증산성과를 날같이 확대하고있다.

미세와 그 주총세력들의 제제압살책들이 악랄해지고있는 조건에서 지력갱생의 위력이라는 생산성과를 사상적각을 단양하고 증산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은 더욱더 격조높아지고있다. 이 투쟁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왔다.

일꾼들은 단방에서 자주 조직하는 굴진정기에서에서도 로력대 생산실적뿐 아니라 원단위소

비기로운 중요한 항목으로 전투를 벌였다.

그렇게 하니 굴진공들속에서는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새 굴진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활발히 벌어졌다.

관광일꾼들은 산림복구전투를 호소한 당의 의도에 맞게 맞춰진부리 어려운 속에서도 최종 발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이제는 처음에 비해 나뭇잎발리용품을 집단으로 구입하였다.

애로와 난관이 겹치는 속에서도 자기 힘을 굳게 믿고 펼쳐나선 지력갱생의 위력이라는 것이 보다 큰 성과를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실현투쟁속에서 더욱 깊이 체득한 한방의 일꾼들과 전투들은 오늘도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가면서 석탄증산성과를 날같이 확대하고있다.

미세와 그 주총세력들의 제제압살책들이 악랄해지고있는 조건에서 지력갱생의 위력이라는 생산성과를 사상적각을 단양하고 증산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은 더욱더 격조높아지고있다. 이 투쟁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왔다.

일꾼들은 단방에서 자주 조직하는 굴진정기에서에서도 로력대 생산실적뿐 아니라 원단위소

개천관 광 일꾼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꾼들이 혁명의 지위성원,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어여야 합니다.》

승리는 전투전에 마련된다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당 제 7차대회 과정에 관리를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오늘날 한개 단위를 책임진 일꾼들은 생산조직과 지휘를 어떻게 짜고들어야 하는가.

개천관 일꾼들의 사업을 놓고 그에 대한 가지 단방을 찾는다.

이곳 단방에서 주목되는것은 매일 마지마주마다 진행되는 굴진정기이다.

지난 시기 관광적인 굴진실적은 월말에 이르러 떨어지는것이 보편적이었다. 그것은 일부 굴진정기들에서 상공과 중순에 돌진전을 벌여 힘겨운 기본적으로 수행한 다음부터는 당을 끌어안는것과 적지 않게 관련되어있다.

관광일꾼들은 대공의 창조적 열의와 끊임없이 불리없이 자기 힘을 쉼없이 쓰고있는 자신들의 일본세에서 표본을 찾았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관광일꾼들은 기술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방도를 모색하던중 그 주기를 맞새가 아니라 이틀로 정하기로 하였다. 기술과 이론을 바탕으로 당부서성원들의 책임일꾼을 더욱 높이는 한편 일꾼들이 직접 그들과 함께 이론에 한한 직접적막담을 붙이보며 기술공정장 잡담되고있는 정황을 제때에 극복하도록 생산자들을 각성시켜나갔다.

작업공정추진정형에 대한 검토 및 평가체계를 새롭게 한 것 또한 관광에서는 공경상관자가 생기는것을 제때에 바로잡았으며 자체의 시간, 로력비를 잃어가지 않았다.

이론이 아니다. 관광일꾼들은 현실실정의 요구에 맞게 동화상에 의한 지력갱생의 막강공정체계를 더욱 끈끈히 확립하여 생산지휘에서의 신속성, 정확성을 보장하고있을뿐아니라 생산을 확대해나가는 투쟁의 선봉을 증산열풍의 그대로 석탄생산과도 이어지도록 하고있다.

이곳 관광일꾼들의 사업정형은 오늘날 자기 단위의 현실조건에 맞게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며 생산자재중의 창조적열의를 더욱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증산성과를 달성할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자강력을 보검으로 틀어쥐고

제남관 광무직장 로동계급의 투쟁

미세와 그 주총세력들이 만리마속도로 질풍같이 내몰리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조작해낸 유언(세계경제)를 지역자력의 위력으로 깰수서버릴 일념으로 제남관 전투들이 막강한 투쟁을 벌여나가고있다.

그들속에서는 공무직장의 로동계급도 있다.

우리는 자재의 힘과 기술로 견인능력이 높은 전차를 훌륭히 제작해낸 이들의 투쟁과정을 통해 그 어떤 제재나 봉쇄책도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우리 전투들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깊이 느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지역자력의 위력으로 5개년전투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전진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올해 1월말 공무직장앞에는 지난해 총정의 200일전투기간 5년차를 만들어본 경험에 토대하여 전진능력이 높은 10년차를 뜻깊은 평평성적까지 새로 제작해내 대한 과업이 떨어졌다.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자재의 힘으로 새 전차를 제작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곳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이 전투를 적들의 봉쇄책을 짓부수는 또 하나의 결사전

조양관 광 일꾼들의 사업에서

조양에서 전투투기의 하나인 정대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자 곧 석탄증산성과가 아닌가.

문제를 이렇게 제기한 지체인은 당조직과의 토의를 거쳐 굴진공들속에서 착암기와 정대를 애호관리하기 위한 전바판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한편 부러진 정대들도 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그러던중 지체인은 개천철도국의 어느 한 단원에서 페루를 맞담을정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다음날 그 단원에 가서 그들의 작업모습을 구체적으로 본 지체인은 유절한 페루를 높은 석간역-조양역철도를 직접 밟아보았다.

페루처럼 부러진 정대도 맞담을접을 하면 얼마든지 리용할수 있다는 확신이 굳어졌다. 지체인은 유절한 정대들과 기술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후 한방에서는 정대맞담을 접기를 제작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지체와 부러진 쇠철동무를 비롯하여 제작조성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조양관과 배전실을 비롯한 각종 실비, 부분들을

형봉관 광 대성경에서

형봉관 광 대성경의 전투들은 력전지구관광합기업소의 정동중에서 언제나 앞선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혁신자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속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변영리로 이어나가는것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과 인민위대 사령관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로 분방한 강일군들과 전투들의 앞길을 여는 여인난관이 가로막고있었다.

불리한 전상조건, 긴장한 로력과 실비... 바로 이러한 때인 지난 7월 초 대성경 전투들은 우리 당의 열렬추진으로 국방과혁신자들이 대공간관도로드 《화성-14》형시험발사에서 성공했다는 격조높은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우리는 국방과혁신자들의 투쟁기쁨을 따라배워 련속적인 공격으로 더 높은 석탄산을 향한 당에 끝없이 충실한 지하호방의 영예를 떨치자.

전체 전투들이 심장의 펄을 편 편 뛰며 련속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공격전에 펼쳐나갔다.

경쟁과 분초급담리원장을 비롯한 일꾼들은 영의 격양을 충동전하여 전투 일인당, 교대당 석탄증산성과를 최대한으로 높이는것을 증산의 기본과로 보고

형봉관 광 대성경에서

형봉관 광 대성경의 전투들은 력전지구관광합기업소의 정동중에서 언제나 앞선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혁신자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속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변영리로 이어나가는것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과 인민위대 사령관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로 분방한 강일군들과 전투들의 앞길을 여는 여인난관이 가로막고있었다.

불리한 전상조건, 긴장한 로력과 실비... 바로 이러한 때인 지난 7월 초 대성경 전투들은 우리 당의 열렬추진으로 국방과혁신자들이 대공간관도로드 《화성-14》형시험발사에서 성공했다는 격조높은 소식에 접하게 되었다.

우리는 국방과혁신자들의 투쟁기쁨을 따라배워 련속적인 공격으로 더 높은 석탄산을 향한 당에 끝없이 충실한 지하호방의 영예를 떨치자.

전체 전투들이 심장의 펄을 편 편 뛰며 련속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공격전에 펼쳐나갔다.

경쟁과 분초급담리원장을 비롯한 일꾼들은 영의 격양을 충동전하여 전투 일인당, 교대당 석탄증산성과를 최대한으로 높이는것을 증산의 기본과로 보고

련속적인 공격전으로

형봉관 광 대성경에서

전투를 전개하였다.

일꾼들이 직접 굴진공, 제단공이 되어 생산공작전의 앞장에 섰다. 대외의 기수, 증산투쟁의 부제가 되어 혁신분부들은 그들의 모임을 생산자재 등의 투쟁기회를 활판에 대어주었다.

굴진소대원들은 앞선 발과 발을 받아들이며 굴진속도를 더욱 높여나갔다.

굴진성과가 계속 확대되는 속에 절실히 필요되는것은 단차와 동발을 비롯한 실비와 자재들이다.

비록 하차소 대에서는 작업시간을 연장해가면서 버려리본 신속히 하여 막강하게 필요한 단차들을 제때에 보장하였다. 영의 전체 전투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통발들을 최수리하기 위한 공격전에 펼쳐나갔다.

경쟁과 분초급담리원장을 비롯한 일꾼들은 영의 격양을 충동전하여 전투 일인당, 교대당 석탄증산성과를 최대한으로 높이는것을 증산의 기본과로 보고

만리마속도창조의 기세드높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기문제를 풀자면 단천발전소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단천발전소건설은 공사일이 방대하므로 발전소건설에 전담, 전공, 전인원 동원되어야 합니다.》

사리원광산기계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사상 최대의 제압책과 도발적공격을 지역자력의 위력으로 격퇴하고있다.

중흥한 자재에 의한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만리마속도창조전의 불길을 단천발전소건설장에 보내줄 광자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려 지난 8월달현재 막대한 광자생산과제를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은 전투장에 결사관련의 기풍이 차넘치는 속에 련일

광 차생산 결속

사리원광산기계공장에서

위원회일꾼들은 현장에 나가 결된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광자생산에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김대철, 리광선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꾼들은 자재보장과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체계있게 해나갔다.

은 전투장에 결사관련의 기풍이 차넘치는 속에 련일

만능어선 새로 건조

공부들도 자재의 힘으로 마련하였다. 공무직업의 로동계급도 예외가 없을만큼 최대한의 량을 동원하여 각종 무수출을 제때에 보장하여 고기배전조기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얼마전에 고기배전 건조하여 마다 피운 이곳 일꾼들은 봉업원들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현대적 때를 더 많이 부여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쏟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893호

주제106(2017)년 8월 29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자라났으며 만개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수형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 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붉은기 수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수여한다.

3중3대혁명붉은기 수여기공기업국 자재상사 청진지구자재공급소 평양정보기술국 정보회1연구소 국제위성통신국

2중3대혁명붉은기 봉양산섬유공방 평안고려약방장 홍진구역사역소 맥포구역 소신남내전문농업농장 일곡구역단

문덕구 통일협동농장 제7작업단 사주구역인민실업공방 해주포장재공방 중강구역대공공방 천태대경수산사업소 피상은하피복공방 태안군신협기업소 천수조립 작업소 남산전자기구공방

3대혁명붉은기 평안전자의기구공방 평안구역제과도소 련전지구관광합기업소 련전전부구역리공방 독장지구관광합기업소 독장서림사대 순천지구청년관광합기업소 순천지구관광요체 안주화전건설사업소 공무동력수리직장 북강군 남협협동농장 제1작업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893호

주제106(2017)년 8월 29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자라났으며 만개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수형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 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붉은기 수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수여한다.

3중3대혁명붉은기 수여기공기업국 자재상사 청진지구자재공급소 평양정보기술국 정보회1연구소 국제위성통신국

2중3대혁명붉은기 봉양산섬유공방 평안고려약방장 홍진구역사역소 맥포구역 소신남내전문농업농장 일곡구역단

문덕구 통일협동농장 제7작업단 사주구역인민실업공방 해주포장재공방 중강구역대공공방 천태대경수산사업소 피상은하피복공방 태안군신협기업소 천수조립 작업소 남산전자기구공방

3대혁명붉은기 평안전자의기구공방 평안구역제과도소 련전지구관광합기업소 련전전부구역리공방 독장지구관광합기업소 독장서림사대 순천지구청년관광합기업소 순천지구관광요체 안주화전건설사업소 공무동력수리직장 북강군 남협협동농장 제1작업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893호

주제106(2017)년 8월 29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수형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 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붉은기 수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수여한다.

3중영예의 붉은기 수여구역 물곡구역공공학교 사포구역 충성고급중학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893호

주제106(2017)년 8월 29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영예의 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수형함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 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붉은기 수여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수여한다.

3중영예의 붉은기 수여구역 물곡구역공공학교 사포구역 충성고급중학교

신로원광산합기업소 3년단합건설도 상요금들이보장 수안구역 신원단 1310대 태동단군 신봉농장 제5작업단 대안학도사학관 외우도구역 평남협동농장 제1작업단

봉강군 봉호협동농장 제6작업단 대안구역제천합기업소 열지리직장

라선시 라선지구 비과라선시 신봉지구 원정농장 제3작업단

평양전철기계공방 상원세멘트면합기업소 상원시외서방산 제63직장 평양역차대

현성역 시용철집대 굴진철집소대 후추정역전

성원갈탄사업소 대성산유회시원리소 조선인민혁명상사 민예전립실 김일성공화국 평양농업대학 농업생물학부

신로원광산합기업소 3년단합건설도 상요금들이보장 수안구역 신원단 1310대 태동단군 신봉농장 제5작업단 대안학도사학관 외우도구역 평남협동농장 제1작업단

봉강군 봉호협동농장 제6작업단 대안구역제천합기업소 열지리직장

라선시 라선지구 비과라선시 신봉지구 원정농장 제3작업단

평양전철기계공방 상원세멘트면합기업소 상원시외서방산 제63직장 평양역차대

현성역 시용철집대 굴진철집소대 후추정역전

성원갈탄사업소 대성산유회시원리소 조선인민혁명상사 민예전립실 김일성공화국 평양농업대학 농업생물학부

만능어선 새로 건조

공부들도 자재의 힘으로 마련하였다. 공무직업의 로동계급도 예외가 없을만큼 최대한의 량을 동원하여 각종 무수출을 제때에 보장하여 고기배전조기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얼마전에 고기배전 건조하여 마다 피운 이곳 일꾼들은 봉업원들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현대적 때를 더 많이 부여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쏟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광 차생산 결속

사리원광산기계공장에서

위원회일꾼들은 현장에 나가 결된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광자생산에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김대철, 리광선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꾼들은 자재보장과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체계있게 해나갔다.

은 전투장에 결사관련의 기풍이 차넘치는 속에 련일

만능어선 새로 건조

공부들도 자재의 힘으로 마련하였다. 공무직업의 로동계급도 예외가 없을만큼 최대한의 량을 동원하여 각종 무수출을 제때에 보장하여 고기배전조기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얼마전에 고기배전 건조하여 마다 피운 이곳 일꾼들은 봉업원들은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현대적 때를 더 많이 부여하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쏟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만리마속도창조를 석탄증산성과로 빛내며 드높은 열의에 넘쳐있다. - 력성관광에서 - 본사기자 찍음

